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etronas sets sights on possible new FLNG vessel

말레이시아의 Petronas가 비개발된 가스전의 상업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FLNG를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Petronas측은 세번째 FLNG를 확보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대형 컨테이너선 연내 대량 발주

13,000~15,000TEU급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 건조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됨. Costamare는 15,000TEU급 6척을 발주하기 위해 조선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Zim Line도 이 선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됨. 대만의 Evergreen Marine은 15,000TEU급 컨테이너선 6+4척을 발주할 계획으로 9월부터 5개 조선사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CNOOC eyes major upstream and LNG business shake-up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CNOOC)가 Upstream E&P(Exploration and Production)사업부와 LNG거래, 가스 인프라, 전력 운영 사업부를 통합하는 대형 개편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됨. 해당 개편안에 따라 자원개발(E&P)를 담당하는 CNOOC Ltd와 LNG 터미널 및 전력 운영을 담당하는 CNOOC Gas&Power 간 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팬데믹은 해운산업 변화의 발판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Webinar)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해운업은 회복의 탄력성을 입증했다고 보도됨. 그 과정을 이끌었던 요인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었으며, COVID-19는 해운업내 디지털솔루션 정착을 앞당겼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인프라코어, 공모로 1,300억 무보증 사채 발행

두산인프라코어는 15일 공모방식으로 1,30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함. 사채 발행 목적은 부채 차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보도됨. 공모희망금리는 연 3.90% ~ 4.90%라고 보도됨. 청약기일은 오는 27일이라고 보도됨. (서울경제)

동일철강, 대선조선 품는다

동일철강이 중견조선업체 대선조선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보도됨. 동일철강은 대선조선 채권자인 수출입은행과 매각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밀실사에 들어간다고 공시함. 채권단은 연내 매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동일철강이 대선조선을 최종 인수할 경우 화인베스틸은 안정적인 제품 조달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